

블라디미르 드 세미르 교수 PCST 회장

“과학보도, 생활과 밀착된 과학에 관심 갖길”

제9회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PCST-9)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17~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과학과 일반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40여 개국의 과학커뮤니케이션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스페인 명문 폼프 파브라 대학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블라디미르 드 세미르(Vladimir de Semir) PCST 네트워크 회장을 지난 5월 17일 행사장에서 만나 이번 회의의 특성과 의미를 들어봤다.



대담 | 김일주 _ 한겨레신문 기자 pearl@hani.co.kr

▶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는 어떤 행사인가.**

각 나라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PCST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PCST에서는 각 지역별 과학 적용사례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뒤 보편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워낙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이 발달한다. PCST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적용사례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

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 **‘과학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단어다. 전세계적으로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커뮤니케이션은 ‘삶의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대가 변했다. 지식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지식을 보유하고 제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 그 지식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사회참여로 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시민들에게 이런 지식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과학

과 사회의 괴리를 좁히는 차원이 아닌,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예를 들어 연구비 책정의 우선 순위는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결정에 시민들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참여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과학과 지식이 사회 발전의 자원이 되며, 과학을 통해 삶을 누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❶ 과학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지난해 한국의 황우석 스캔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스페인에는 과학적 부정행위를 다루는 400시간짜리 강의를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백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줄인다면, 과학 지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과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잡지는 일반 방송, 신문과는 맥락이 다르다. 하나의 매체에서, 다른 맥락을 지닌 또 하나의 매체로 과학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 올바른 과학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인지 스페인에서도 '퀴크'라는 잡지에서 황 교수 사건을 미디어적으로 분석한 코너가 있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과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에서든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논문의 저자에는 황 박사 외에도 25명의 연구원과 미국인이 포함돼 있었다. 사기라고 표현한다면, 황 박사 외의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아무리 동료 과학자라도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두고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기에 사기를 쳐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과학전문잡지들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연구성적을 먼저 찾으려고 경쟁한다.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잡지에 연구성고가 게재되면 무조건 신뢰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과학자들도 '사기행각'을 알아내기 어려운데 기자들이 더 빨리 알아내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학잡지에 게재된다고 성과를 그대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하면 안 된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미디어들은 생활 속의 과학에 더 충실했으면 한다. 삶의 공간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는, 생활과 밀착된 과학에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너무 부족하다.

❷ 과학대중화운동이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만의 의무는 절대 아니다. 과학 전문지 기자만 과학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술인도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복잡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❸ 스페인에는 과학과 건축의 조화로 돋보이는 관광명소가 있다. 효과적인 과학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의 이해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면 사회에 유익한 걸 창조해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쉽지는 않지만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❹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하나의 현대적 사조'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미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디오나 비디오 매체에 비쳐지는 과학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청소년들은 이들 매체를 보고 사회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학을 결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자가 되면 오랜 기간 연구만 해야 하고 연구비 확보도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전달받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는 너무 화려하게만 그려지고 있다. 과학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 등에서 과학자들의 보람과 성취감을 전달할 수 있다면 과학이 매력적인 분야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 또한 중요하다.

❺ 이번 행사를 통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매 컨퍼런스에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컨퍼런스마다 성장하고 있다. 컨퍼런스가 매번 달라야 성공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배울 것이다. 한국은 과학과 사회의 괴리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한국에 새로운 지식운동이 전파될 것을 기대한다. ㉮